■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89-122.
http://doi.org/10.17948/kcs.2023..100.089

【 특집 : 『金石集帖』의 종합적 연구 3 】

영조 대에 조성된 왕실 석물과 현판*

김문식(金文植)**

목 차

1. 머리말
2. 왕실 가족의 행적을 기록한 석물과 현판
3. 왕릉 석물과 종묘 현판
4. 왕실 가족 묘소의 석물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금석집첩』에 수록된 왕실 자료 가운데 영조 대에 조성된 왕실 석물과 왕실 현판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영조 대에 조성된 석물과 현판에는 영조의 어제와 어필을 새긴 것이 많다. 영조는 모후인 인현왕후와 인원왕후, 생모인 숙빈 최씨에 대해 어필비를 남겼다. 영조는 가까운 가족을 위해 지은 글에서 슬프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고, 가장 큰 슬픔은 맏며느리 현빈과 맏손자 의소세손의 지석에 나타난다. 영조는 가까운 가족의 석물에서 자신의 슬픔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영조 대에 조성된 석물과 현판에는 종실 인물의 글씨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여산군 이방, 서평군 이요, 여선군 이학, 낙풍군 이무 등이 남긴 글씨가 있다. 또한 왕실 현판에는 김재로와 김치인 부자와 직접 관련된 것이 나타난다. 왕실 현판은 두 부자가 직접 제작한 것이기에 『금석집첩』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영조 대에 조성된 석물과 현판에는 명나라를 존중하는 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3068401)
** 단국대 사학과 교수.

석물과 현판을 조성한 시기를 표시할 때 명나라가 있을 때는 명나라 연호를 표시하였고, 청나라가 있을 때는 간단하게 연도만 표시하였다. 또한 명나라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준 시호는 반드시 기록하지만 청나라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준 시호는 기록하지 않았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왕실 자료에는 영조의 왕실 가족에 대한 애틋한 감정과 명나라를 계승한다는 역사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제어: 『금석집첩』, 영조, 현빈, 의소세손, 김재로, 김치인.

1. 머리말

현전하는 『金石集帖』 220帖은 영조 대에 영의정을 역임한 金在魯(1682~1759)·金致仁(1716~1790) 父子가 주도하여 편집한 金石文 탁본첩이다.[1] 이 탁본첩에는 다양한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한 금석문이 수록되어 있고, 왕실 인물에 관한 기록도 다수가 있어 왕실 자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금석집첩』에 수록된 왕실 관련 금석문 가운데 영조 대에 만들어진 금석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그런데 『금석집첩』에는 금석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판의 拓本도 다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조 대에 조성된 44건의 왕실 석물과 현판을 대상으로 한다.[2]

---

1) 『金石集帖』에 대한 기왕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박진완, 「京都大學 부속도서관 소장 『金石集帖』의 자료 현황」, 『해외사료총서 15—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Ⅲ』, 국사편찬위원회, 2007.
박철상, 「朝鮮時代 金石文 자료의 정리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0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심경호,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金石集帖)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심경호, 「『금석집첩』과 『금석속첩』의 성립에 관한 탐색—김재로 본종·방친 비탁과 청풍김씨 문인 찬술 비탁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9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김문식, 「『금석집첩』의 왕실 자료와 태조 이성계의 행적」, 『민족문화연구』 9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박영민, 「『金石集帖』의 여성 묘주 탁본 연구」, 『민족문화연구』 9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유지복, 「『金石集帖』 碑文의 隸書 연구」, 『민족문화연구』 9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박철상, 「金在魯家 『金石集帖』 纂輯 연구」, 『민족문화연구』 9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정병삼, 「『金石集帖』 수록 불교자료의 역사적 의의」, 『민족문화연구』 9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정우봉, 「『金石集帖』 수록 武人 자료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9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金石集帖』의 구성 및 현전 현황에 대해서는 박철상, 「金在魯家 『金石集帖』 纂輯 연구」, 『민족문화연구』 9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22-28면 참조.

이하 본문에서는 영조 대에 조성된 왕실 석물과 현판을 금석문의 내용에 따라 왕실 가족의 행적, 왕릉과 종묘, 왕실 가족의 묘소로 장을 구분하여 검토하며, 맺음말에서는 영조 대에 조성된 왕실 석물과 현판의 특징을 정리하기로 한다.

2. 왕실 가족의 행적을 기록한 석물과 현판

영조 대에 왕실 가족의 행적을 새긴 석물과 현판은 왕실 가족들의 연고가 있던 서울, 개성, 함흥과 영흥에 세워졌다.

먼저 서울에는 仁顯王后 閔氏와 定順王后 宋氏의 행적을 기록한 어필비와 영조가 耆老臣들에게 내린 綸音과 四勿軒에서 느낀 소회를 기록한 현판이 있다. 이 중에서 영조의 윤음 현판과 소회 현판은 『금석집첩』을 편집한 김재로·김치인 부자가 제작한 것이다.

○ 「仁顯聖后誕降舊基」(『金石集帖·洪』)

영조는 1761년(영조 37)에 숙종의 繼妃인 인현왕후 민씨가 태어난 장소에 「仁顯聖后誕降舊基」 비석을 세웠다. 영조는 전면의 "仁顯聖后誕降舊基" 여덟 글자와 陰記를 모두 어필로 썼다. 다음은 음기의 全文이다.

> 우리 성후(聖后)께서 태어난 장소에 대해 어제지문(御製誌文)에서 서부(西部) 반송방(盤松洞)이라 하였다. 소자가 불초(不肖)하여 금년 가을에 추모하여 처음 방문하였고, 비석을 세우고 비각을 건립하며, 손을 씻고 삼가 써서 그 개략을 기록하여 영원히 후세에 전한다. 황명(皇明) 숭정 기원후 세 번째 신사년(1761)에 우리 성후께서 승하하신 지 60주년이 되는 달 그믐날 아침에 절하고 울음을 머금은 채 삼가 쓰다.[3]

---

2) 김문식은 『金石集帖』에 수록된 탁본 중에서 영조 대에 작성된 왕실 관련 금석문을 47건으로 보았다(앞의 글, 2022, 54-59면). 본고는 그중에서 王子君의 墓誌銘 3건을 제외하고 44건을 분석하였다.

3) 『金石集帖·洪』, 「仁顯聖后誕降舊基」. "我聖后誕降之所, 御製誌文, 西部盤松洞. 而小子不肖, 今年秋, 因追慕始訪問, 而竪石建閣, 盥手敬書, 畧記其槩, 永垂來世焉. 皇明崇禎紀元後三辛巳, 我聖后禮陟重回月朔朝, 拜手飮涕謹識."

영조가 이 비문을 쓴 날짜는 1761년 7월 30일이었다. 인현왕후의 사망일은 1701년(숙종 27) 8월 14일이므로, 인현왕후가 돌아가신 지 60주년이 되는 달의 그믐날이었다. 이날 영조는 창덕궁의 眞殿(선원전)을 방문하고, 皇壇(대보단)에 가서 奉審하였으며, 돌아오는 길에 寒泉洞 立巖(선바위)에 이르러 驪陽府院君 閔維重의 옛 집터를 찾았다. 인현왕후는 민유중의 딸이었으므로 그 집터가 인현왕후가 태어난 장소였기 때문이다. 영조는 都承旨 趙榮進의 안내를 받으며 한천동 입암의 밑에까지 갔고, 궁궐로 돌아온 후 밤중에 碑額과 음기를 써주면서 한천동에 어필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 조영진은 민유중 집안에 내려오는 帳籍을 통해 그 거처가 車洞(수렛골)이었음을 확인하고 영조에게 보고하였으며, 영조는 어필비와 비각을 수렛골에 세우게 하였다.[4]

○「淨業院舊基」(『金石集帖・洪』)

영조는 1771년(영조 47) 8월 28일에 단종의 왕비인 定順王后 宋氏가 궁궐에서 쫓겨난 후에 살았던 燕尾汀洞에「淨業院舊基」비석을 세우게 하였다.[5] 영조는 비석 전면에 있는 "淨業院舊基" 다섯 글자와 음기를 어필로 썼다. 다음은 음기의 全文이다.

> 황조(皇朝) 정덕(正德) 16년인 신사년(1521, 중종 16) 6월 4일에서 251년 후인 신묘년(1771) 9월 6일에 세우다. 앞면과 뒷면을 모두 직접 쓰다.[6]

정순왕후는 1454년(단종 2)에 단종과 혼인하여 왕비로 책봉되었고, 1455년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上王으로 물러날 때 懿德王大妃가 되었다. 1457년(세조 3)에 단종이 魯山君으로 강등될 때 夫人으로 강등되고, 같은 해 단종이 廢庶人이 되자 庶人으로 강등되었다. 이후 정순왕후는 淨業院에서 거처하다가 1521년(중종 16) 6월 4일에 82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정순왕후는

4)『英祖實錄』권98, 英祖 37년 7월 丙寅(30일).
5)『英祖實錄』권117, 英祖 47년 8월 丙申(28일).
6)『金石集帖・洪』,「淨業院舊基」. "皇朝正德十六年辛巳六月初四日, 後二百五十一年辛卯九月六日立. 前後皆親書."

1698년(숙종 24)에 단종이 복위되면서 왕후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영조가 기록한 '正德 16년 6월 4일'은 정순왕후가 사망한 날짜이며, 영조가 1771년 8월 28일에 쓴 어필을 새긴 비석은 9월 6일에 정업원 터에 세워졌다.

○「耆老諸臣召見日綸音」(『金石集帖・宇』)

영조는 1756년(영조 32) 7월 5일에 眞殿의 남문 밖에 있는 齋室인 養志堂에서 耆老臣 6인과 判府事인 俞拓基와 李宗城을 만났다.[7] 숙종의 둘째 계비이자 영조의 養母인 仁元王后는 영조가 숙종의 옛 신하들을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음식을 보냈고, 영조와 기로신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조는 1744년(영조 20)에 자신이 숙종의 행적을 따라 51세의 나이로 耆老所에 입소한 것과 이 해에 인원왕후가 칠순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윤음을 내렸고, 領中樞府事 金在魯는 이 윤음을 쓴 현판을 기로소의 耆英館에 걸었다.

다음은 영조 윤음의 첫머리이다.

> 지난 갑자년(1744)에 내 나이가 쉰하나였는데 고사를 따르려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생각이 있어서였으나 기로소에 들어가는 나이를 3년이나 넘길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올해도 반이 지나 (진전에) 추알(秋謁)을 하고 돌아오니 추모하는 생각이 배나 더하다. 가마가 영수각(靈壽閣)을 지나갈 때 이런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기로소의 신하들을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우리 자성(慈聖, 인원왕후)께서 이 소식을 듣고 특별히 음식을 하사하시니, 지금의 이 조치는 한편으로 예전의 성대한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올해 자성의 연세가 칠순이 되는 해를 만나 장수를 송축하는 뜻을 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견(引見)하는 곳은 바로 진전(眞殿) 문 밖의 재실(齋室)이다.[8]

이를 보면 영조는 자신이 숙종을 계승하여 기로소에 입소한 일, 숙종 어진이

---

7) 『英祖實錄』에서는 7월 6일자 기사에 나온다. 『英祖實錄』 권88, 英祖 32년 7월 辛未(6일). "上御養志堂, 召見耆社諸臣及判府事兪拓基・李宗城. 大王大妃賜饌, 上從容酬酢, 竟夕而罷."

8) 『金石集帖・宇』, 「耆老諸臣召見日綸音」. "頃於甲子(1744), 予年五十一, 其欲追踵故事, 入耆社. 而意亦在焉, 豈意已過入耆社之年, 又三載乎哉? 誠萬萬夢想之外, 且今歲踰半, 秋謁而廻, 一倍追慕之餘. 輦過靈壽閣, 難耐此心, 其命入侍於耆社諸臣矣. 我慈聖聞之, 特賜饌. 今者此擧, 一則掄揚昔年盛事, 一則今年幸値慈聖寶算七旬之年, 兼祝岡陵之意. 故引見之處, 卽眞殿門外齋室也."

있는 선원전 재실에서 숙종의 신하를 만난 일, 인원왕후가 숙종의 신하에게 음식을 하사하고 칠순을 맞은 일 등을 거론하여 숙종과 인원왕후,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인연을 강조하였다.

영조는 윤음에서 동석한 기로신 6인과 배석한 유척기와 이종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이 숙종의 신하이자 자신의 신하임을 중시하였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영부사(領府事) 김재로(金在魯); 예전에 지위가 당상관이었고, 내가 즉위한 후 20여 년을 재상으로 있으면서 내가 조제(調劑)하는 정치를 도움
- 전 판서(判書) 홍중징(洪重徵); 예전의 중신(重臣) 홍만조(洪萬朝)의 아들. 그 아비는 『어제상훈(御製常訓)』에서 '기해년(숙종이 기로소에 입소한 1719년)에 잔치를 내릴 때 경들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은근히 물어보았다.'고 한 사람
- 전 판윤(判尹) 어유용(魚有龍)・전 판서 유복명(柳復明); 예전의 종반(從班)이며, 내가 즉위한 후 갑술년(1754)에 기로소에 들어간 사람
- 전 판서 이중경(李重庚)・정형복(鄭亨復); 내가 즉위한 후 과거에 합격하고 기로소에 들어간 사람
- 판부사(判府事) 유척기(俞拓基); 예전에 홍문관의 신하였고 나이가 망칠(望七, 66세)에 이름
- 판부사 이종성(李宗城); 고 봉조하(奉朝賀) 이태좌(李台佐)의 아들. 봉조하는 예전에 재신(宰臣)이었고 내가 즉위한 후 8년 동안 재상을 지냈으며 11년에 기로소 신하가 됨. 판부사는 나이가 망칠(望七, 65세)이므로 특별히 명하여 함께 입시하게 함

이날 영조는 1744년 자신이 기로소에 입소할 때 참석했던 신하들을 예우하는 조치도 하였다. 영조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직접 제문을 짓고 禮官을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살아있지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남은 음식을 하사하였으며, 지방에 있는 신하에게는 각 도에서 음식을 푸짐하게 공급하고 안부를 묻게 하였다. 영조는 이 윤음을 작성한 날짜를 "皇朝 崇禎三丙子 孟秋 初五日"로 기록하고, 영조를 만났던 기로신 김재로는 '75세인 자신이 영조의 명을 받아 이 글을 쓰다.'라고 하였다.[9]

9) 『金石集帖・宇』, 「耆老諸臣召見日綸音」. "甲子入耆社時, 耆社入參諸臣, 祭文親製以下, 遣禮官致祭. 在世

사흘 후인 7월 8일에 영조는 칠순을 맞은 인원왕후에게 致詞와 表裏를 올리는 陳賀를 거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영조가 양지당에서 만났던 기로신도 참석하였고, 다음날 60세 이상인 儒士와 武士을 대상으로 庭試를 거행하면서 그 이름을 '耆舊庭試'라 하였다.[10] 칠순을 맞이하는 인원왕후의 장수를 기원하는 축하 행사이고 과거 시험이었다.

○「御製紀懷」(『金石集帖・洪』)

영조가 1766년(영조 42) 11월 1일에 慶熙宮 四勿軒에 남긴 어제 현판이다. 사물헌은 德游堂의 후면에 있는 건물로, 경종의 계비이자 영조의 형수였던 宣懿王后(1705~1730)가 말년에 살았던 곳이고, 1760년(영조 36)에 영조는 건물의 이름을 사물헌이라 하였다.

이날 영조는 경종과 선의왕후의 誕日을 연이어 보내고 제사에 사용할 香을 맞이하였으며, 사물헌에 들러 형수인 선의왕후를 추억하는 글을 지었다.[11]

> 아 불초(不肖)는 이번 달이 무슨 달인가? 황형(皇兄)과 황수(皇嫂)가 탄신한 이틀이 금방 지나가니 어째서 눈물을 흘리는가? 어제의 어제(御製)에서 은미한 마음을 조금 폈다고 하였으니 향을 맞이하는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향을 맞이하여 건명문(建明門)에 이르자 걸음이 조금 나아지니 이는 누가 내린 것인가? (…) 남은 회포가 잊히지 않는 중에 덕유당(德游堂) 남쪽에 사물헌(四勿軒)이 있으니 예전에 현판을 걸었던 곳이다. (…) 사물헌은 경술년(1730)에 황수가 거처하는 곳이었다. (…) 비록 친제(親祭)는 아니나 향을 직접 맞이한 후 이 마음을 견디기 어려워 오늘 밤은 이곳에서 머물려 하니, 하나는 예전에 사물헌이라 명명한

耆舊重臣, 今日不入侍耆社臣, 特賜餘饌. 在外人, 令本道食物, 從厚輸送. 絜矩之道, 傳旣云, 勿論宗親文・蔭・武, 宰列以上年八十者, 其令京外, 食物存問, 示予尊年之意, 歲皇朝崇禎三丙子孟秋初五日記. 大匡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 七十五歲 臣金在魯 奉敎謹書."

10)『英祖實錄』 권88, 英祖 32년 7월 癸酉(8일). "上親賀東朝. 時, 聖壽過周甲已二年, 東朝寶籌, 又恰滿七旬, 實往牒所無之慶也. 上以元朝之上冊陳賀, 不足以稱今日之慶, 遂具翼善冠, 絳紗袍, 親陪箋文, 率耆社諸臣・文武宗親・宰列年六十以上, 進致詞表裏, 設軒架於萬安門外. 王世子以遠游冠・絳紗袍, 詣仁政門, 祗迎行禮. 蓋前此二日, 上召見耆社諸臣於眞殿齋室, 東朝以其爲先朝舊臣也, 特命賜膳. 上欲於三日之內獻賀, 乃以是日行之. (…) 仍命以明日親行儒武六十以上庭試, 名之曰'耆老庭試,' 亦所以飾喜也."

11) 경종의 탄일은 10월 28일, 선의왕후의 탄일은 10월 29일이다.

뜻을 추모하는 것이요, 하나는 경술년에 거처한 뜻을 추억하는 것이며, 하나는 정묘(丁卯)라는 간지가 회포를 일으키는 뜻을 살피려는 것이다. (…) 이에 그 대강을 불러 쓰게 하여 나의 추모를 대략 기술하고 입시한 상신(相臣)에게 써서 걸게 한다. 병술년(1766) 11월 초길(初吉) 전 1일에 쓰다.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손부 신 김치인(金致仁)이 명을 받들어 삼가 쓰다.[12]

이 글을 보면 영조는 자신의 소회를 기록한 글을 가까이에 있던 相臣에게 써서 현판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를 담당한 사람은 좌의정 金致仁이었다.

다음으로 고려 왕조에 대한 절의를 지킨 사람들이 살았던 개성에는 영조의 어필비와 현지 관리가 제작한 비석이 있었다.

○ 「杜門洞碑」(『金石集帖・談』)

開城留守 趙遠命(1675~1749)은 1730년(영조 6) 3월에 두문동 72인의 행적을 기록한 「杜門洞碑」를 세웠다. 다음은 그 全文이다.

고려 말에 절의(節義)로 알려진 사람은 정문충(鄭文忠, 정몽주)과 길야은(吉冶隱, 길재) 등 몇 사람이 있었고, 우리 역대 국왕들이 이들을 드러내고 제사 지내며 포상한 것이 잘 갖추어졌다. 이외에는 현저하게 드러난 사람이 없었다. 내가 듣기에 두문동 72인은 절의가 매우 높지만 드러내거나 제사 지내지 못했으니, 이름과 성이 전해지지 않아 그런 것이다. 조의생(曹義生)과 임선미(林先味), 맹씨(孟氏) 성을 가진 사람도 72인 중의 사람이니, 그들의 이름과 성을 전하고 드러내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조선이 건국한 초기에 72인은 귀화하려 하지 않고 골짜기 밖에 문을 설치하여 닫아놓고 열지 않았다. 과거에 응시하라고 하면 채찍을 가지고 나와 '나는 장사를 할 것이라.' 하고는 다투어 고개를 넘어가 버렸다. 훗날 사람들이

12) 『金石集帖・洪』, 「御製紀懷」. "嗚呼不肖, 今月何月, 皇兄皇嫂誕辰, 兩日輒過, 是豈涕乎. 昨日御製, 旣諭少伸微忱, 不過祗迎故也. 今日香祗迎, 隨至建明門, 其步猶勝, 是誰之賜. (…) 餘懷耿耿之中, 德游南邊, 有一軒名曰四勿, 卽昔年命揭者. (…) 此軒, 庚戌年爲皇嫂居廬之處也. (…) 雖非親祭, 親祗迎後, 此心難耐, 今夜欲宿此室, 一則追慕昔年命軒之意, 一則憶庚戌居廬之意, 一則覽干支興懷之意也. (…) 斯呼寫其槩, 略述此慕, 而仍令入侍相臣, 書揭焉. 歲丙戌仲冬初吉前一日識.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領經筵事 監春秋館事 世孫傅 臣金致仁 奉敎謹書."

> 그 고개의 이름을 부조현(不朝峴) 또는 괘관현(掛冠峴)이라 하고, 그 동네 이름을 두문동이라 하였다. 그저 구전(口傳)일 뿐이라 표석을 세워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을 잊을 뿐만 아니라 그 땅까지 잊어버려 황량한 풀밭의 언덕을 가리키며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다행히 조씨와 임씨는 먼 후손이 있어 그 장소를 알고 있으므로 향리에서 계획하여 돌에 새겨 기록하였다. 경술년 3월에 개성 유수 조원명(趙遠命)이 기록하다.[13]

이를 보면 1730년의 시점에서 '두문동 72인'이란 말은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이나 살았던 장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조의생(曹義生)과 임선미(林先味)는 이름이 알려졌고, 두 사람의 후손은 선조가 살았던 장소를 알았으므로 조원명은 이 비를 세울 수 있었다.

○ 「高麗忠臣不朝峴碑」(『金石集帖・談』)

영조는 1740년(영조 16) 8월 29일부터 6박 7일의 일정으로 개성 행차를 다녀왔다.[14] 9월 1일에 영조는 齊陵과 厚陵을 방문하고 不朝峴을 지나갈 때 '不朝峴'과 '杜門洞'이란 이름의 유래를 들었다. 영조는 7언시 한 구절(勝國忠臣勉繼世)을 짓고는 자신을 수행한 신하들에게 한 구절씩 화답하게 하였다. 영조는 또 "高麗忠臣不朝峴" 7글자를 어필로 써주며 부조현에 관한 일을 기록한 비석을 세우게 하였다.[15] 이 비석은 영조의 어필비이다.[16]

---

13) 『金石集帖・談』, 「杜門洞碑」. "麗末, 以節義稱, 有鄭文忠・吉冶隱數賢, 我列聖, 旌棨之, 俎豆之, 褒崇之, 甚備. 此外無著顯者. 以余所聞, 杜門洞七十二者, 義至高, 旌棨俎豆之獨不及, 豈以名姓不傳而然耶. 曹義生・林先味・孟姓人, 亦七十二子中人, 則宜就傳其名姓者, 而闡發之, 不可使湮滅. 我朝受命初, 七十二子者, 不肯歸化, 設門於谷外, 閉而不開. 令赴擧, 則執鞭而出曰, '吾將行商.' 爭先踰峴而去. 後之人名其峴, 曰不朝, 曰掛冠, 名其洞曰杜門. 而只是口傳, 未有立標而記蹟, 不但忘其人, 並與其地而忘之, 指點荒煙野草之墟, 而不能的知. 幸而曹・林兩賢, 有遠裔, 知其處. 遂謀於鄕, 刻石而識之. 歲庚戌季春, 留守趙遠命記."
이 비의 전문은 『松都續誌』 권2, 「山川・杜門洞」에도 수록되어 있다.

14) 김문식, 「1740년 국왕 영조의 개성 행차」, 『조선시대사학보』 52, 조선시대사학회, 2010, 138-140면.

15) 영조가 쓴 어필에 대해 『英祖實錄』에서는 '不朝峴' 3글자라 하였고[권52, 英祖 16년 9월 己巳(1일)], 『承政院日記』에서는 '高麗忠臣不朝峴' 7글자라 하였다[英祖 16년 9월 4일(壬申)]. 『금석집첩』에 수록된 탁본을 보면 『승정원일기』의 기록이 맞다.

16) 『松京廣攷』에는 御筆碑의 내용과 함께 영조를 수행한 신하들의 명단을 나온다. 여기에는 都承旨 閔亨洙, 同副承旨 金尙魯, 左副承旨 趙明謙, 左承旨 韓師得, 右副承旨 宋敎明, 注書 李會元, 別兼春秋 金漢喆, 兼春秋 權瑞東, 假注書 洪益三, 修撰 金尙迪, 修撰 鄭翬良, 校理 南泰齊가 나오고, 留守 金若魯가

비석 전면에는 영조 어필인 "高麗忠臣不朝峴"이 있고, 음기는 '高麗忠臣不朝峴碑'라는 제목으로 비석을 세운 연유를 기록하였다. 음기는 영조의 명을 받은 개성유수 金若魯가 지었고, 개성부 經歷인 韓鳳朝이 글씨를 썼다. 다음은 음기에서 영조의 행적을 칭송한 부분이다.

> 우리 성상께서 선조(先朝, 숙종)의 옛일을 계승하여 고도(故都, 개성)에 오셨다. 흥하고 망한 자취를 어루만져 왕씨의 후예를 관리로 등용하고, 문충공(정몽주)의 충절을 칭찬하여 선죽교에 비를 세웠다. 고려의 충의(忠義)를 듣고 그 명성을 영원히 수립할 방안을 생각하시니, 이는 역대 제왕이 가지지 못한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 성상께서 이를 가지고 천백 년 위에 아름다운 공적을 밝히고 천백 세대 후에 세교(世敎)를 부식시켰으니 일거양득이다. 아 아름답도다![17]
>
> ○「御製御筆善竹橋詩」(『金石集帖・談』)

영조는 1740년(영조 16) 9월 3일에 개성의 善竹橋, 成均館, 穆淸殿을 방문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영조는 鄭夢周가 피살된 선죽교를 지나갈 때 그의 충절을 기리는 14글자를 어필로 써서 개성유수에 주며 선죽교 옆에 어필비를 세우게 했다.[18]

비석의 전면에는 영조의 어필시 "도덕과 충성이 만고에 뻗어가니, 포은 공의 절개는 태산처럼 높구나.[道德精忠亘萬古 泰山高節圃隱公]" 14글자가 새겨져 있다. 음기에는 "御製御筆善竹橋小識"라는 제목과 함께 비석을 세운 연유를 기록하였다.

> 내가 왕위에 오른 지 16년인 경인년(1740) 9월 3일에 목청전을 참배할 때 길옆에 다리가 있었으니, 바로 고려 시중(侍中) 포은(圃隱) 정공(鄭公)이 절개를 세운 곳이다. 다리에 이르러 군악 연주를 멈추고 시를 지어 비석을 세우니, 이는 공의 도덕을 높이고 충절을 밝히려는 것이지 어찌 나의 일시적인 감정 때문이겠는가?

어필비의 음기를 撰했다고 하였다(『松京廣攷』 권3, 「山川・不朝峴」).

17) 『金石集帖・談』, 「高麗忠臣不朝峴碑」. "惟我聖上, 遵先朝舊事, 光臨故都. 撫興亡之跡, 而官王氏之裔, 奬文忠之節, 而碑善竹之橋. 聞勝國之忠義, 而又思所以永樹風聲, 是誠歷代帝王之所未能有者. 而我聖上乃有之, 表懿烈於千百載之上, 扶世敎於千百代之下, 一擧而兩得之. 嗚呼, 休哉!"

18) 肅宗이 1693년(숙종 19) 8월에 개성을 방문했을 때는 鄭夢周와 徐敬德을 기리기 위해 書院에서 제사를 올리게 했다(김우진, 『숙종의 대청인식과 수도권 방어정책』, 민속원, 2022, 120~132면).

또한 옛일을 본받아 도(道)와 충(忠)을 숭상하려는 성대한 뜻이다. 때는 황조(皇朝)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 103년 겨울에 세우다.[19]

이 음기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 『영조실록』에는 영조가 대제학 吳瑗에게 명령한 것으로 나온다.[20] 그러나 『금석집첩』의 탁본을 보면, 영조가 음기를 짓고 쓴 것으로 나타난다.

○ 「御製御筆杜門洞詩」(『金石集帖・談』)

영조는 1751년(영조 27) 9월 27일에 두문동 72인에게 제사를 지내고, 어제시를 어필로 써주며 이를 새긴 비석을 건립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영조는 두문동 72인의 후손 가운데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즉시 등용하라고 하였다.[21]

이 비석의 전면에는 어필시 "고려 충신이 지금도 남아있으니, 특별히 그들의 동네에 세워 그들의 절개를 표창한다.[勝國忠臣今焉在 特竪其洞表其節]" 14글자가 새겨져 있다. 음기에는 "숭정(崇禎) 기원후 124년인 신미년(1751) 9월에 두문동의 고려 충신 72인의 절의(節義)에 감격하여 특별히 그 자손을 등용하고 두문동에 비석을 세우게 하였다. 이 해는 내가 왕위에 즉위한 지 27년이 된다."고 기록하여,[22] 두문동에 어필비가 세워진 내력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태조가 王業을 일으킨 함흥과 영흥에는 영조의 어필비가 세워졌다.

○ 「別諭」(『金石集帖・地』)

---

19) 『金石集帖・談』, 「御製御筆善竹橋詩」. "予卽祚十六年歲庚寅秋九月三日歷瞻穆淸殿時, 橋在途傍, 是麗朝侍中圃隱鄭公樹節之地也. 臨橋止輦, 製詩竪石, 盖所以尊公道德, 表公精忠矣, 而是豈特予一時偶感乎? 亦仰體昔年, 崇道尙忠之盛意也. 時, 皇朝崇禎紀元後百十三年冬立."
이와 동일한 내용이 『中京誌』 卷6, 「橋梁・善竹橋」에 수록되어 있다.

20) 『英祖實錄』 권52, 英祖 16년 9월 辛未(3일). "上自行宮, 將回鑾, 至善竹橋, 親書'道德精忠亘萬古, 泰山高節圃隱公'十四字, 令留守刻碑立之. 又命大提學吳瑗, 紀述事蹟, 刻之碑陰."

21) 『英祖實錄』 권74, 英祖 27년 9월 庚寅(27일).

22) 『金石集帖・談』, 「御製御筆杜門洞詩」. "崇禎紀元後百二十四年辛未季秋, 追感杜門洞前朝忠臣七十二人節義, 特命錄用其孫, 竪碑洞中, 寔予卽祚二十七年也."

영조는 1729년(영조 5) 윤7월 25일에 慰諭安集御史 李宗城을 함경도로 파견하여 현지 백성을 위로하게 하였다.[23] 함경도는 태조가 王業을 일으킨 소중한 땅이었으나 4년 연속해서 각종 재해를 입었고, 1729년에는 특별히 큰 水災를 입어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영조가 어사를 파견하여 민생을 돌아보게 한 것이다.

영조는 이종성을 파견할 때 어필로 別諭를 써주었고, 1734년(영조 10) 7월에 함경도 관찰사 李箕鎭이 영조의 어필 별유를 새긴 비석을 함흥 관아의 북쪽에 세우고 그 내력을 기록하였다.

다음은 영조가 이종성에게 내린 별유의 중심 내용이다.

> 북로(北路)는 왕업을 일으킨 옛 땅으로 조종조(祖宗朝)부터 우리 선왕(先王)까지 돌보아주심이 심상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 이에 위유안집어사(慰諭安集御史) 이종성을 파견하여 위무(慰撫)하고 권집(勸集)하게 하며, 그 외에 구제해야 할 일을 간곡하게 면전에서 말하여 백성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일을 편의에 따라 거행하게 한다. 곡식을 옮기는 일은 묘당(廟堂)에서 급히 거행하게 하겠으며, 감영의 전포(錢布)와 북관의 내노비(內奴婢), 주창(州倉)에 올려놓은 것은 모두 가져다 쓰고, 떠내려간 민가와 빠져 죽은 민정(民丁)에게 휼전(恤典)을 거행하게 하여 내가 상심하고 참혹하게 여기는 뜻을 알려라. (…) 군기시에서 탄일(誕日)에 올리는 갑주(甲胄) 값도 특별히 정지하여 감면해 주어라.[24]

그로부터 5년 후 함경 관찰사 이기진이 영조의 어필비를 세운 연유를 기록한 부분이다.

> (이종성이 영조 별유를) 읽어 선포하던 날, 주(州)의 젊은이와 늙은이, 부녀자와 아이들은 귀담아들으며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관찰사도 모두 분주하게 시행하여 끝내 버려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주민(州民)들은 춤추고 환호하며

---

23) 『英祖實錄』 권23, 英祖 5년 윤7월 丁酉(25일).

24) 『金石集帖·地』, 「別諭」. "別諭. 北路以興王舊地, 自祖宗朝, 曁我先王, 其所眷顧, 比非尋常. (…) 故玆遣慰諭安集御史李宗城, 慰撫勸集, 其他振救之事, 丁寧面諭, 仍使可以濟民保民者, 便宜行之. 移粟一節, 亦令廟堂, 卽速擧行, 至於監營錢布, 北關內奴婢州倉入上之類, 一體取用, 漂流民家, 湮沒民丁, 亦命恤典擧行, 示予傷慘之意. (…) 誕日所封甲胄價軍寺所上者, 特令停減焉."
이 내용은 『承政院日記』 英祖 5년(1729) 윤7월 25일(丁酉)에도 수록되어 있다.

> 한목소리로 의논하기를 '북토(北土)의 홍수가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어 죽음이 가까웠는데, 지금 우리 성상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갱생하게 하셨다. 또한 은혜로운 말씀을 주군(州郡)에 내릴 때는 사신(詞臣)이 대신 짓는데, 유독 우리 땅에는 환하게 빛나는 글을 어필로 내리셨다. 그 특별한 영예와 은혜는 바로 백악(白嶽)과 성천(城川)처럼 오래되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어찌 오래도록 전할 것을 도모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드디어 서로 돌을 캐고 석공을 모집하여 새겼다. 신 이기진이 함경도를 맡았을 때 공역(工役)이 막 시작되었으니 민심이 오래되어도 느슨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다. (…) 가선대부 함경도관찰사 겸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함흥부윤 신 이기진은 삼가 절하고 머리 숙여 쓰다.[25]

이를 보면 영조의 어필비는 함흥 지역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세웠고, 관찰사 이기진은 비석을 건립한 내력을 추가로 기록하였다.

○ 「太祖大王誕生舊里」(『金石集帖・地』)

영조는 1755년(영조 31) 1월에 태조가 태어난 영흥 흑석리에 이 비석을 세웠다. 영조는 비석 전면의 "太祖大王誕生舊里" 여덟 글자를 어필로 썼고, 음기는 영조가 짓고 예문관 제학 趙明鼎이 썼다.

이 해는 태조(1335~1408)가 탄생한 지 7주갑 420년이 되는 해였으므로, 영조는 태조가 탄생한 장소에 이 비석을 세우고 '우리 聖祖(태조)께서 나라를 개창하고 지금 4백년 가까이 소자에까지 전해졌으며, 성조께서 誕降하신 해를 만나니 슬픈 생각이 배나 더한다.'고 기록하였다. 그로부터 150년 후인 1905년(광무 9)에 고종 황제는 영조의 행적을 계승하여 같은 장소에 「太祖高皇帝誕降舊里碑」를 세웠다.[26]

---

25) 『金石集帖・地』, 「別諭」. 讀宣之日, 州之黎老婦孺, 莫不聳聽咨嗟, 而守臣亦皆奔走體行, 卒無捐瘠焉. 於是州民鼓舞歡抃, 咸一辭而謀曰, '北土之懷襄, 在古靡有是也, 溝壑焉近止, 今我聖上, 繄起死而肉骨之矣. 且凡恩言之下州郡者, 詞臣代撰, 而獨於吾土, 煥乎奎章而御墨也. 則其殊榮異渥, 直可與白嶽城川, 共其悠長而難泯也, 盍圖壽其傳者.' 遂相率伐石, 募工而模勒之. 屬臣箕鎭, 忝按是道, 而工役方擧, 可見民心之愈久而不懈也. (…) 嘉善大夫 咸鏡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咸興府尹 臣李箕鎭 拜手稽首謹書.
이 陰記는 李箕鎭의 『牧谷集』에도 수록되어 있다(권7, 記, 「咸興府御筆碑後記」).

26) 김문식, 앞의 글, 2022, 64-66면.

3. 왕릉 석물과 종묘 현판

왕릉의 비석은 왕릉에 묻힌 인물의 성명, 생몰년, 행적, 가족 관계를 새겨 그 인물을 기리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 왕릉에는 神道碑와 表石을 세웠으며, 신도비는 주로 조선 초기에 세워졌고,[27] 현종 대 이후는 왕릉 표석만 세워졌다. 표석의 제식을 보면 전면에 국왕의 廟號와 陵號를 쓰고, 왕비를 국왕과 合葬한 경우에는 왕비의 諡號를 쓰고 '祔'자 다음에 왕비가 묻힌 위치를 표시하였다.[28]

영조는 조선 왕릉 가운데 표석이 없었던 곳의 표석을 집중적으로 세웠으며, 『금석집첩』에는 영조 대에 세웠던 왕릉 표석의 탁본이 수록되어 있다. 영조 대에 조성된 왕릉 표석 22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9] 이 중에서 3건은 『금석집첩』에 수록되지 않았다.

○「朝鮮國 景宗大王懿陵 宣懿王后祔」(『金石集帖・宇』)
○「朝鮮國 仁祖大王長陵 仁烈王后祔左」(『金石集帖』 누락)
○「朝鮮國 端宗大王莊陵」(『金石集帖』 누락)
○「朝鮮國 世宗大王英陵 昭憲王后祔左」(『金石集帖・宇』)
○「朝鮮國 宣祖大王穆陵 懿仁王后祔中岡 仁穆王后祔左岡」(『金石集帖・玄』)
○「朝鮮國 莊烈王后徽陵」(『金石集帖・玄』)
○「朝鮮國 端懿王后惠陵」(『金石集帖・玄』)
○「朝鮮國 章敬王后禧陵」(『金石集帖・黃』)
○「朝鮮國 文定王后泰陵」(『金石集帖・黃』)
○「朝鮮國 仁宗大王孝陵 仁聖王后祔左」(『金石集帖・黃』)
○「朝鮮國 明宗大王康陵 仁順王后祔左」(『金石集帖・黃』)
○「朝鮮國 元宗大王章陵 仁獻王后祔左」(『金石集帖・黃』)
○「朝鮮國 定宗大王厚陵 定安王后祔左」(『金石集帖・玄』)
○「朝鮮國 文宗大王顯陵 顯德王后祔左岡」(『金石集帖・玄』)
○「朝鮮國 世祖大王光陵 貞熹王后祔左岡」(『金石集帖・玄』)

---

27) 조선 왕릉에서 神道碑가 세워진 곳은 桓祖의 定陵, 懿惠王后의 和陵 太祖의 健元陵, 神懿王后의 齊陵, 太宗・元敬王后의 獻陵, 世宗・昭憲王后의 英陵 등이다(김민규, 『조선시대 능묘 비석 연구』, 신구문화사, 2023, 109-112면).
28) 왕릉의 祔葬 사례에 대해서는 박영민, 앞의 글, 2022, 86-87면 참조.
29) 나인혜, 『영조대 왕릉 표석의 수립과 그 의의』,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23 참조.

○「朝鮮國 德宗大王敬陵 昭惠王后祔右岡」(『金石集帖・玄』)
○「朝鮮國 睿宗大王昌陵 安順王后祔左岡」(『金石集帖・玄』)
○「朝鮮國 成宗大王宣陵 貞顯王后祔左岡」(『金石集帖・玄』)
○「朝鮮國 中宗大王靖陵」(『金石集帖・玄』)
○「朝鮮國 仁元王后祔右岡」(『金石集帖・黃』)
○「朝鮮國 神德王后貞陵」(『金石集帖』 누락)
○「朝鮮國 定順王后思陵」(『金石集帖・黃』)

이 중에서 懿陵의 표석은 두 차례에 걸쳐 제작되었다. 1724년(영조 즉위) 12월에 景宗의 의릉이 조성되었을 때는 표석 전면과 음기에 경종에 관한 정보만 기록되었다. 이때 전면의 篆字는 李世最가 썼고, 음기는 李眞壽가 썼다.

전면: 朝鮮國 景宗大王懿陵
음기: 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 崇禎紀元後六十一年戊辰十月二十八日誕生. 庚子卽位, 甲辰八月二十五日昇遐, 十二月十六日葬于楊州南中梁浦天藏山申坐之原, 在位四年, 壽三十七.

1730년(영조 6) 10월에 선의왕후가 합장되었을 때 전면과 음기에 宣懿王后에 관한 정보가 추가되었다. 이때 전면의 篆字는 李德孚가 썼고, 음기는 宋成明이 썼다.

전면: 宣懿王后祔
음기: 繼妃. 敬純孝仁惠穆宣懿王后魚氏, 乙酉十月二十九日誕生. 戊戌冊世子嬪, 庚子封王妃, 庚戌六月二十九日昇遐, 十月十九日祔葬在下. 壽二十六.

왕릉의 표석 가운데 특이한 것은 숙종의 둘째 계비인 仁元王后의 표석이다. 明陵에는 1701년(숙종 27)에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의 능이 제일 먼저 조성되었고, 1720년(경종 즉위)에 숙종의 능을 인현왕후의 능과 나란히 조성하였다. 1757년(영조 33)에 인원왕후가 사망하자 명릉의 서쪽 언덕에 그 능을 조성하고 별도의 표석을 세웠다. 이 때문에 표석 전면에 "朝鮮國 仁元王后祔右岡"이라 기록하여 숙종의 명릉에 합장한 사실을 기록하고, 음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영조의 어필임을 밝혔다.

혜순(惠順) 자경(慈敬) 헌열(獻烈) 광선(光宣) 현익(顯翼) 강성(康聖) 정덕(貞德) 수창(壽昌) 영복(永福) 융화(隆化) 정의장목(定懿章穆) 인원왕후 김씨는 정묘년 7월 29일에 탄생하였고, 임오년에 왕비에 책봉되었으며, 정축년 3월 26일에 승하하여 7월 12일에 고양 대왕릉(大王陵)의 우강(右岡) 을좌(乙坐) 언덕에 장사지내니 수명은 71세이다. 아 전면의 전자(篆字)와 음기(陰記)는 소자(小子)가 피눈물을 흘리며 손 모아 절하고 삼가 써서 나의 정성을 조금이나마 편다. 숭정(崇禎) 기원후 130년에 대왕릉의 비석 왼쪽에 세운다.30)

다음의 〈표 1〉은 영조 대에 조성된 왕릉 표석의 인물과 수립 연도, 표석의 전면과 음기를 쓴 사람, 표석 전면의 篆字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영조 대에 조성된 왕릉 표석

왕릉	인물	수립 연도	篆額	陰記	篆額
懿陵	경종 선의왕후	1724년 1730년	李世最 李德孚	李眞洙 宋成明	朝鮮國 景宗大王懿陵 宣懿王后祔
長陵	인조 인열왕후	1731년	洪鉉輔	趙正萬	朝鮮國 仁祖大王長陵 仁烈王后祔左
莊陵	단종	1733년	李聖龍	李橈	朝鮮國 端宗大王莊陵
英陵	세종 소헌왕후	1745년	趙尙絅	李墍	朝鮮國 世宗大王英陵 昭憲王后祔左
穆陵	선조 의인왕후 인목왕후	1747년	俞拓基	李墍	朝鮮國宣祖大王穆陵 懿仁王后祔中岡 仁穆王后祔左岡
徽陵	장렬왕후(인조)				朝鮮國 莊烈王后徽陵
惠稜	단의왕후(경종)				朝鮮國 端懿王后惠陵
禧陵	장경왕후(중종)	1753년	洪啓禧	李楸	朝鮮國 章敬王后禧陵
泰陵	문정왕후(중종)				朝鮮國 文定王后泰陵
孝陵	인종 인성왕후				朝鮮國 仁宗大王孝陵 仁聖王后祔左
康陵	명종 인순왕후				朝鮮國 明宗大王康陵 仁順王后祔左
章陵	원종 인헌왕후				朝鮮國 元宗大王章陵 仁獻王后祔左

30)『金石集帖・黃』,「朝鮮國 仁元王后祔右岡」. "惠順慈敬獻烈光宣顯翼康聖貞德壽昌永福隆化定懿章穆仁元王后金氏, 丁卯九月二十九日誕生, 壬午冊封王妃, 丁丑三月二十六日昇遐, 七月十二日葬于高陽大王陵右岡乙坐之原, 壽七十一. 嗚呼, 前面篆字及陰記, 小子泣血拜手敬書, 少伸微忱焉. 崇禎紀元後百三十年立于大王陵碑左."

厚陵	정종 정안왕후	1755년	洪鳳漢	洪啓禧	朝鮮國 定宗大王厚陵 定安王后祔左
顯陵	문종 현덕왕후				朝鮮國 文宗大王顯陵 顯德王后祔左岡
光陵	세조 정희왕후				朝鮮國 世祖大王光陵 貞熹王后祔左岡
敬陵	덕종 소혜왕후				朝鮮國 德宗大王敬陵 昭惠王后祔右岡
昌陵	예종 안순왕후				朝鮮國 睿宗大王昌陵 安順王后祔左岡
宣陵	성종 정현왕후				朝鮮國 成宗大王宣陵 貞顯王后祔左岡
靖陵	중종				朝鮮國 中宗大王靖陵
明陵	인원왕후(숙종)	1757년	英祖	英祖	朝鮮國 仁元王后祔右岡
貞陵	신덕왕후(태조)	1770년	洪啓禧	李最中	朝鮮國 神德王后貞陵
思陵	정순왕후(단종)	1771년	蔡濟恭	蔡濟恭	朝鮮國 定順王后思陵

영조 대에 조성된 왕릉 표석에는 명나라 연호와 명나라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하사한 시호[皇朝賜諡]가 특별히 기록되었다. 또한 표석을 세운 연도를 표시할 때도 "崇禎紀元後"라는 연호를 표시하여 尊明 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다음의 〈표 2〉는 표석에 나타나는 명나라 연호와 명나라 황제가 조선 국왕의 내린 시호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영조 대 왕릉 표석에 나타나는 명 연호와 시호

왕릉	인물	연호	시호
懿陵	경종 선의왕후	崇禎紀元後六十一年戊辰十月二十八日 誕生	
長陵	인조 인열왕후	崇禎紀元後一百四年申亥八月三十日庚申 移奉合葬	
英陵	세종 소헌왕후	崇禎紀元後一百十八年乙丑立	莊憲
穆陵	선조 의인왕후 인목왕후	崇禎紀元後一百二十年立	昭敬
徽陵	장렬왕후(인조)	崇禎紀元後一百二十年立	
惠陵	단의왕후(경종)	崇禎紀元後一百二十年立	
禧陵	장경왕후(중종)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六年立	
泰陵	문정왕후(중종)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六年立	
孝陵	인종 인성왕후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六年立	榮靖
康陵	명종 인순왕후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六年立	恭憲
章陵	원종 인헌왕후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六年立	恭良

厚陵	정종 정안왕후	元至正十七年丁酉七月朔日誕生 皇明洪武三十一年戊寅冊封王世子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八年乙亥二月日立	恭靖
顯陵	문종 현덕왕후	皇明永樂十二年甲午十月三日誕生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八年乙亥二月日立	恭順
光陵	세조 정희왕후	皇明永樂十五年丁酉九月二十九日誕生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八年乙亥二月日立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八年乙亥二月日立	惠莊
敬陵	덕종 소혜왕후	皇明正統三年戊午九月十五日誕生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八年乙亥二月日立	懷簡
昌陵	예종 안순왕후	皇明景泰元年庚午正月朔日誕生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八年乙亥二月日立	襄悼
宣陵	성종 정현왕후	皇明天順元年丁丑七月三十日誕生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八年乙亥二月日立	康靖
靖陵	중종	皇明弘治元年戊申三月五日誕生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八年乙亥二月日立	恭僖
明陵	인원왕후(숙종)	崇禎紀元後百三十年立	
貞陵	신덕왕후(태조)	崇禎紀元後一百四十三年庚寅十月日立	
思陵	정순왕후(단종)	崇禎紀元後一百四十四年辛卯十月日立	

〈표 2〉를 보면 명나라 때 국왕이 태어났으면 그 날짜를 모두 皇明 연호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1745년(영조 21) 표석부터 표석을 건립한 해를 '崇禎紀元後 + ○年'이란 방식으로 기록하고, 1755년 표석부터 표석을 건립한 날짜까지 기록하고 국왕이 태어난 날짜를 皇明 연호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조선 전기의 국왕은 국왕이 사망한 후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시호[皇朝賜諡]를 기록하였으나, 후기의 국왕은 청나라 황제가 하사한 시호가 있었음에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왕릉 표석에서 명 황제가 내린 시호는 꼼꼼히 기록하면서 청 황제가 내린 시호는 기록하지 않는 방식은 宗廟에서 국왕의 神主를 기록하는 방식과 비슷하였다.[31]

영조는 선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 제례에 부지런히 참석하였고, 종묘의 望廟樓에 현판을 남겼다. 망묘루에 걸린 영조의 어제 현판은 金在魯·

31)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神主位版 題式의 변화—明淸의 교체를 기점으로—」, 『震檀學報』 101, 진단학회, 2006, 234-248면.

金致仁 父子가 제작한 것이며, 이들이 『금석집첩』을 편집하면서 특별히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32]

○ 「望廟樓御製懸板」(『金石集帖・宇』)

영조는 1745년(영조 21) 4월 7일에 종묘에 행차하여 神室을 돌아보고 다음 날에 있는 夏享大祭에 사용할 희생을 살폈다. 영조는 하향대제를 직접 거행하려 하였으나 오랫동안 요양하던 몸이라 신하들은 왕세자가 攝行할 것을 요청하였다. 영조는 이를 수락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칠언절구 시를 지었고, 이를 현판으로 만들어 望廟樓에 걸어두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영조의 어제시는 西平君 李橈가 쓰고, 그 연유를 기록한 발문은 宗廟署의 都提調인 金在魯가 짓고 썼다.[33]

먼저 영조가 "走筆寫懷題望廟樓(붓을 달려 회포를 기록하고 망묘루에 제하다)"란 제목으로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一年一享今幾年	일 년에 한 번 제사한 것이 지금까지 몇 년인가
强抑攝行自悵然	억지로 섭행하게 하니 저절로 슬퍼진다
回首丹門日欲暮	머리 돌려 단문(丹門)을 보니 해가 지려 하는데
此心惟在廟庭前	내 마음은 여전히 종묘 뜰 앞에 남아있네

을축년(1745) 하향(夏享)에 직접 희생을 살피는 날에 짓다.

영조의 시 다음에는 영중추부사 김재로가 발문을 남겼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상(上, 영조) 21년인 을축년(1745) 4월 8일에 태묘(太廟)에서 대제가 있을 때 상의 건강이 오랫동안 조섭 중이었으나 반드시 직접 거행하려 하셨다. 신하들이 힘써 섭행(攝行)할 것을 청하였고, 여러 번 강권한 후에야 허락하셨다. 성상께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하루 전에 특별히 알묘례(謁廟禮)를 거행하고 직접 제기와 희생을 살피셨다. 저녁때 궁으로 돌아와 감회를 시로 지으시고, 승선(承宣, 좌부승지 趙明履)에게 명하여

32) 『금석집첩』에는 金在魯의 先世, 祖考, 先考, 先兄, 傍親의 墓碑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심경호, 앞의 글, 2022, 13-16면).
33) 『承政院日記』 英祖 21년 4월 7일(己酉).

이를 써서 망묘루에 남겨 두게 하셨다. 신들이 봉독하고 감탄하며, 효성스런 생각이 무궁함을 더욱 우러르며 삼가 선사(繕寫)하고 현판에 새겨 벽미(壁楣)에 걸어둔다.

종묘서(宗廟署) 도제조, 영돈녕부사 김재로(金在魯)가 삼가 짓고 쓰다.[34]



〈그림 1〉 영조 어제 "走筆寫懷題望廟樓"

○ 「登望廟樓紀懷」(『金石集帖・洪』)

영조는 1762년(영조 38) 4월 10일에 종묘에 행차하여 하향대제를 지내고, 망묘루에 올라 1745년에 하향대제를 직접 지내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마음을 표현한 현판을 보고 느낀 회포를 기록하였다.[35] 영조는 그때는 52세였는데도 건강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69세의 나이에 직접 제사를 지낸 감격을 표현하였다.

내가 왕위에 오른 지 38년이고 나이가 69세인데 하약(夏禴)을 직접 거행하고 돌아갈 때 남은 회포가 잊히지 않았다. 망묘루에 올라 을축년(1745)의 시를 보고, 북문을 열어 종묘를 보니 과연 우러러 보였으니 제대로 된 이름을 얻었다고 할만하다. 아 52세 때에는 친향하려 하였으나 희생과 제기를 살필 뿐이었으니,

34) 『金石集帖・宇』, 「望廟樓御製懸板」. "上之二十一年乙丑夏四月八日, 大享于太廟時, 上候久在靜攝, 而必欲躬豫將事. 諸臣力請攝行, 强而後勉許. 聖意深以爲缺然, 乃於前一日, 特行謁廟禮, 親省器省牲. 夕始還宮, 感懷成詩. 命承宣書之, 留付望廟樓. 臣等奉讀欽歎, 益仰孝思之無窮, 謹繕寫鏤板, 揭諸壁楣. 本署都提調, 領敦寧府事臣金在魯, 謹識幷書."

35) 『英祖實錄』 권99, 英祖 38년 4월 癸酉(10일). 영조는 재위 52년간 총 113회에 걸쳐 宗廟를 방문하였다. 영조가 종묘를 방문한 추이에 대해서는 李旺茂, 「조선후기 종묘 행행의 추세와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75, 조선시대사학회, 2015, 219-227면.

어찌 18년이 지나고 지금 70세에 가까워 태실에서 직접 제사를 지낼 줄 생각했겠는가? 망묘루에서 바라보며 이곳에 머물면서 조석으로 의지코자 하나 어찌 가능하겠는가? 묘사(廟司)에서 눈물을 닦으며 기록하는 것이 나으니, 제거(提擧)에게 연월을 기록하고 새겨서 걸어두게 한다. [을축년의 기록은 김 봉조하(奉朝賀)였고, 지금은 그 아들에게 쓰게 하니 나의 뜻이 있다.][36]

영조의 어제를 필사한 金致仁은 1745년의 망묘루 어제를 필사한 김재로의 아들로 당시 宗廟署의 提調이자 吏曹判書로 있었다. 김치인은 발문에서 영조의 어제를 父子가 필사한 사실을 밝히고, 영조가 칠순 가까운 나이에 종묘대제를 직접 거행함은 천고에 드문 일이라 칭송하였다.

이때 선신(先臣) 충정공(忠靖公) 김재로는 종묘서의 도제조가 되어 삼가 현판을 만들고 그 아래에 써서 걸었다. 18년이 지난 임오년(1762) 4월 10일에 상께서 하향(夏享)을 직접 거행하시고 망묘루에 올라 다시 회포를 기록한 어제문 한 편을 내리셨다. 신 김치인은 선신의 아들로 마침 종묘서의 관리가 되었는데 베껴 쓰고 기록하기를 예전의 일처럼 하라고 명령하셨다. (…)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의 춘추가 지금 칠순이 가까운데 직접 태실에서 제사를 올리시니 이는 천고(千古)의 성절(盛節)이다.[37]

종묘 망묘루의 어제 현판은 김재로·김치인 부자가 제작하고 발문을 쓴 것이었다.

4. 왕실 가족 묘소의 석물

영조 대에 조성된 왕실 가족의 석물에는 생모인 淑嬪 崔氏, 아들 孝章世子와 며느리 賢嬪 趙氏, 딸 和平翁主, 손자 懿昭世孫, 선대 국왕 후궁의 묘소에 세운 表石, 誌石, 神道碑가 있다.

먼저 생모인 숙빈 최씨의 석물에는 신도비와 표석이 있다.

---

36) 『金石集帖·洪』, 「登望廟樓紀懷」. "予卽阼三十八年春秋六十九, 親行夏禴回駕時, 餘懷耿耿. 登樓見乙丑小詩, 開北門而見廟, 果瞻望焉, 名可謂得. 而噫五十二歲欲親享, 而只省牲與器, 豈意挨過十八年, 于今近七之年, 親祼于太室. 而樓中又望見, 欲留此而朝夕瞻依, 焉可得也. 誠不若廟司抆涕以識, 令提擧記下年月鐫揭.[乙丑記下, 則金奉朝賀, 今令其子書之, 意亦在焉.]"

37) 『金石集帖·洪』, 「登望廟樓紀懷」. "惟時, 先臣忠靖公在魯, 爲本署都提調, 奉以鏤板, 記其下方而揭之. 越十八年壬午四月十日, 上親將夏享, 旣畢事而登御是樓, 復下御文紀懷一篇. 以臣致仁, 爲先臣牛馬走, 而適待罪是署也, 命寫而記之如前日事. (…) 仍竊惟念, 聖上春秋, 今旣及七旬, 而躬執祼於太室, 此千古之盛節也."

○「淑嬪崔氏神道碑銘」(『金石集帖・可』)

淑嬪 崔氏(1670~1718)는 1676년(숙종 2)에 궁녀로 선발되었고, 1699년(숙종 25)에 숙빈이 되었다. 1718년(숙종 44) 3월에 사망하고, 5월에 楊州 高嶺洞에 장사지냈으며, 9월에 "朝鮮國後宮淑嬪首陽崔氏之墓"라는 묘표가 세워졌다. 숙빈의 아들인 영조는 1724년 8월에 국왕이 되었고, 이듬해인 1725년(영조 1) 3월에 숙빈 묘소에 神道碑를 추가로 세웠다. 신도비의 문장은 錦平尉 朴弼成이 지었고, 驪山君 李枋이 글씨를 썼으며, 西平君 李橈가 篆額을 썼다. 박필성은 효종의 사위였고, 여산군과 서평군은 宗室 출신이었다.

박필성은 자신이 신도비를 작성할 때 영조가 과장된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며, 숙빈이 숙종을 모신 30년 동안 근검하고 겸손하며 귀한 몸이 된 이후에도 처음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는 숙빈이 덕성이 넉넉하고 성실하였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아 영조를 낳을 수 있었다고 칭송하였다.

> 우리 전하께서 천명을 받아 즉위한 원년은 전 숙빈 최씨가 돌아가신 지 8년이 된다. 유사(有司)가 사례를 살펴 비석 세우는 일을 요청하였다. 비문은 사신(詞臣)에게 명하지 않고 신 박필성에게 명하셨다. 또 하교하기를 '과장된 말은 내가 취하지 않으며, 선빈(先嬪)께서 평소에 조심하고 근신하신 뜻도 아니니 유념하라.'고 하셨다. (…) 신이 생각건대 빈께서는 그 성품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몸가짐은 정숙하고 조심하여, 진중하고 화목하며 온순하고 화순하셨다. (…) 궁중 안에 있으면서 덕의(德意)가 넉넉하고 성신(誠信)이 돈독함에 빈틈이 없어 역사책을 빛나게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하늘의 복을 받고 성인(聖人)을 낳아 열성(列聖)들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고, 국가의 천억 년 복을 이어가게 한 것은 반드시 그런 까닭이 있었다.[38]

○「朝鮮國 和敬淑嬪 昭寧園」(『金石集帖・可』)

영조는 1744년(영조 20) 3월에 私親인 淑嬪 崔氏의 廟號와 墓號를 높여

38)『金石集帖・可』,「淑嬪崔氏神道碑銘」. "我殿下受命踐阼之元年, 乃先淑嬪崔氏旣卒之八年也. 因有司考例, 陳請命樹麗牲之石. 其文則不以命詞臣, 而以命臣弼成. 旣又敎曰, '誇張之辭, 予所不取, 亦非先嬪平日小心謹愼之意, 其念哉.' (…) 竊伏念, 嬪柔嘉其性, 淑愼其儀, 重靚穆溫, 恭和順承. (…) 惟壺闈之間, 德意之融洽, 誠信之篤至, 於休無間, 可以輝暎彤管, 儷美往牒. 則其迓迎天篤, 生聖人, 承列聖艱大之投, 綿宗祊千億之祚者, 其必有由然矣."

毓祥宮과 昭寧墓라 하였다.[39] 또한 1753년(영조 29) 6월 26일에 소녕묘를 昭寧園으로 봉하고, 육상궁을 방문하여 신주를 고쳐서 썼다.[40] 이날 영조는 소녕원의 표석을 어필로 써서 내렸는데, 숙빈 최씨가 淑媛에 봉해진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41]

영조는 표석의 전면에 "朝鮮國 和敬淑嬪 昭寧園"이라 쓰고, 음기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

> 황명 숭정 무진 기원후 126년이고, 내가 왕위에 오른 지 29년인 계유년 6월 경술일(26일)에 시호를 올리고 원으로 봉(封)한다. 오호라, 이 해는 사친께서 봉작(封爵)된 지 회갑이다. 전면과 후면을 모두 울음을 삼키며 자필로 쓴다.[42]

영조는 1753년 9월에 소령원을 조성한 이후 이곳을 직접 방문하였고, 국왕으로 있는 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숙빈의 소령원을 방문하였다.[43]

영조 대에는 맏아들인 孝章世子와 며느리인 賢嬪 趙氏의 표석과 誌石이 제작되었다.

○「朝鮮國 孝章世子墓 孝純賢嬪祔左」(『金石集帖・黃』)

孝章世子와 賢嬪 趙氏의 표석이다. 이 墓表는 두 차례에 걸쳐 세워졌다. 먼저 효장세자는 1719년(숙종 45) 2월 15일에 태어나 1725년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1728년(영조 4) 11월 16일에 사망했고, 이듬해 1월 26일에 묘소를 조성하고 표석을 세웠다. 이때 세워진 표석의 전면과 음기는 다음과 같다. 『금석집첩』에서 篆字는 兵曹判書 趙文命, 음기는 司諫 曺命敎가 썼다고 기록하였다.[44]

---

39) 『英祖實錄』 권59, 英祖 20년 3월 乙酉(7일).
40) 『英祖實錄』 권79, 英祖 29년 6월 庚戌(26일).
41) 『肅宗實錄』에는 1693년(숙종 19) 4월 26일에 최씨를 淑媛으로 봉한 것으로 나온다[권25, 肅宗 19년 4월 己亥(26일)].
42) 『金石集帖・可』, 「朝鮮國 和敬淑嬪 昭寧園」. "皇明崇禎戊辰紀元後百二十六年, 卽昨二十九年癸酉六月庚戌日, 上謚封園. 嗚呼, 是年卽私親封爵回甲也. 前後面, 皆飮泣自寫."
43) 영조의 昭寧園 園幸에 대해서는 이왕무, 「영조의 私親宮・園 조성과 幸行」, 『藏書閣』 1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117-125면 참조.
44) 『金石集帖・黃』, 「朝鮮國 孝章世子墓 孝純賢嬪祔左」.

전면: 朝鮮國 孝章世子墓
음기: 孝章世子, 崇禎紀元後九十二年己亥[肅廟四十五年]二月十五日誕生. 乙巳冊封, 戊申十一月十六日卒, 己酉正月二十六日, 葬于坡州順陵左崗乙坐之原[外則卯坐]. 在東宮四年, 壽十歲.

현빈 조씨는 1715년(숙종 41) 12월 24일에 태어나 1727년(영조 3)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1751년(영조 27) 11월 14일에 사망하였고, 이듬해 1월 22일에 효장세자의 왼쪽에 합장되었다. 이때의 표석 전면과 음기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금석집첩』에서 篆字는 洛豊君, 음기는 參議 尹鳳五가 썼다고 기록하였다.[45]

전면: 孝純賢嬪祔左
음기: 孝純賢嬪趙氏, 乙未十二月十四日誕生. 丁未冊嬪, 乙卯賜號賢嬪, 辛未十一月十四日卒. 壬申正月二十二日祔[內乙外卯], 壽三十七.

○「御筆 有明朝鮮國 孝純賢嬪墓 誌石」(『金石集帖・黃』)

영조는 1751년(영조 27) 11월 14일에 맏며느리 현빈이 사망하자 그 誌石을 직접 짓고 어필로 썼다. 지석의 앞에 大字로 "御筆 有明朝鮮國 孝純賢嬪墓 誌石"이라 쓰고, 다음에 小字로 "御製御筆 有明朝鮮國 孝純賢嬪 墓誌"라 쓴 다음 지석의 본문이 시작된다.

영조의 지석에는 현빈이 일찍 남편을 잃어 청상과부가 된 사실과 25년간 자신과 맏며느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지내다가 孝婦를 잃게 된 슬픔을 기록하였다.

아 슬프다. 가례(嘉禮) 다음 해 11월 16일에 효장세자가 요절하니, 예로부터 청상과부가 없었겠는가만 빈과 같은 일이 있었던가? 상여가 나가던 날 자리에 누워 곡읍(哭泣)하며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았다. 내가 온갖 방법으로 깨우치자 빈이 울음을 삼키며 '이미 후사가 없으니 살아도 무엇을 하겠습니까?'라고

45) 『金石集帖・黃』, 「朝鮮國 孝章世子墓 孝純賢嬪祔左」.

대답하였다. 내가 눈물을 뿌리며 대답한 말이 있었고, 자성(慈聖)께서 지성으로 권면하니, 빈이 억지로 마지못해 음식을 들었다.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예(禮)를 거행함에 성인과 다르지 않아 오시(五時)의 제전(祭奠)을 직접 살폈고, 기상이 항상 늠연하면서 3년을 지냈으니 처음에는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 나보다 먼저 가려는 것은 빈의 지극한 소원인데, 이제 소원을 이루어 (효장세자와) 같은 달에 돌아갔으니 빈은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내가 마음 아픈 것은 세상에 누구인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없겠는가만 나와 빈 같은 경우는 없을 것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의 마음을 안 것이 지금까지 25년인데 마음을 알아주는 효부(孝婦)를 영결했으니 지금 이후로 추모하는 회포와 슬퍼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며 회포를 풀 수 있을까? (…) 하루에 밥을 먹는 것이 한 번에 불과하고, 숟가락도 몇 번 뜨는 데 불과한데, 먹는 것은 내가 남기는 찬선(饌膳) 뿐이었다. 내가 많이 먹으면 좋아서 많이 먹다가 수저만 대고 말면 걱정하며 먹지 않았다. 나에게 먹이려고 직접 밤을 삶았는데 영원히 떠나던 날에도 삶은 밤이 소반에 남아있었으니, 진상하려다 병이 위독하여 올리지 못한 것이다. 아 애통하다.[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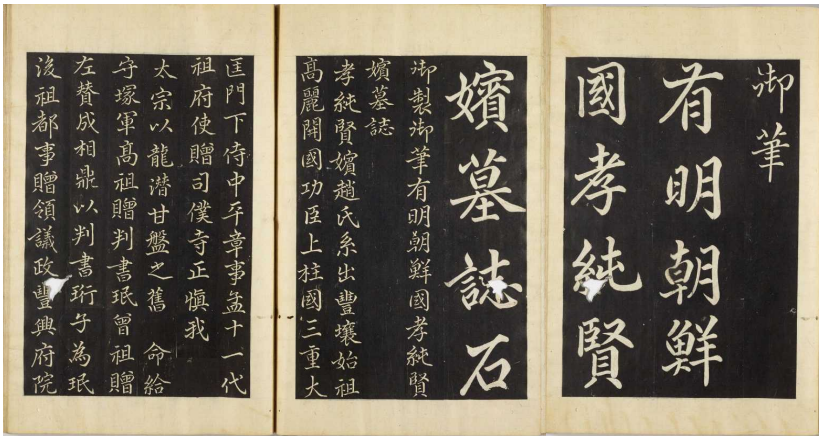
그런데 영조가 작성한 현빈의 지석을 보면, 그는 효장세자가 사망했을 때도 誌石을 지은 것으로 나온다.[47] 『금석집첩』에 1728년에 작성한 효장세자의 지석은 수록되지 않고 1751년에 작성한 현빈의 지석은 수록된 것을 보면, 이 탁본첩은 1751년 이후에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1752년(영조 28) 2월에 영조는 효장세자와 현빈의 묘소를 다녀왔다.[48]

---

46) 『金石集帖・黃』, 「御筆 有明朝鮮國 孝純賢嬪墓 誌石」. "嗚呼痛矣! 嘉禮翌年仲冬十六日, 孝章夭逝, 自古豈無靑孀, 而其有如嬪者乎? 喪出之日, 委席哭泣, 勺水不入口. 予萬般開喩, 則嬪飮泣而對曰, '旣無其後, 生何爲乎?' 予揮涕有答語, 慈聖至誠勸勉, 嬪雖勉强而或啜. 居喪執禮, 無異成人, 五時祭奠, 躬自看視, 氣常凜綴, 挨過三載, 初豈料哉? (…) 而其欲先歸, 卽嬪至願, 于今遂願, 同月以歸, 嬪何憾也? 而予所慟者, 世孰無舅婦, 而未有若予與嬪者矣. 舅婦相爲知心, 今至二十有五年, 又訣知心之孝婦, 從今以往, 追慕之懷, 悲疚之心, 復將語誰而瀉懷? (…) 一日飯不過一次, 匙不過數擧, 所食者唯予餘膳. 而予多食則喜而多食, 只下筋則悶而不食. 以予所食, 親自熟栗, 長逝之日, 有所熟尙在于盤, 蓋欲進而疾篤不能. 吁亦痛矣."
영조의 어제어필인 현빈의 지석은 실록에도 그 全文이 수록되어 있다[『英祖實錄』 권75, 英祖 28년 1월 甲申(22일)].

47) 『金石集帖・黃』, 「御筆 有明朝鮮國 孝純賢嬪墓 誌石」. "依戊申例, 以行錄作誌文, 亦令集摸予所寫孝章誌文字, 補其闕字以鐫. 予今衰暮, 前後作子與婦行錄, 心雖無憾愴, 舊悲今慟, 懷曷喩?"

48) 金世恩, 「『의주등록』을 통해 본 영조 대의 국가 의례와 왕실 행사—영조 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135, 진단학회, 2020, 121-122면.



〈그림 2〉 영조 어필 "有明朝鮮國 孝純賢嬪墓 誌石"

영조는 셋째 딸인 和平翁主의 표석을 어필로 썼다.

○「有明朝鮮 王女 和平翁主之墓」(『金石集帖・表』)

화평옹주는 영조와 暎嬪 李氏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영조의 셋째 딸이자 사도세자의 同腹 누이이다. 1727년(영조 3) 4월 27일에 태어났고, 1738년(영조 14)에 錦城尉 朴明源과 혼인하였으며, 1748년(영조 24) 6월 24일에 2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화평옹주가 사망하던 날, 영조는 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딸의 집을 방문하여 殯所에서 밤을 지새웠고, 殮襲할 때에도 다시 방문하였다.[49] 이후 8월 2일 화평옹주를 발인하기까지 영조는 다섯 차례나 딸의 집을 방문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번 방문하였다.[50]

영조가 어필로 쓴 화평옹주의 墓表는 "御筆 有明朝鮮 王女 和平翁主之墓"이다.

다음으로 영조는 첫 번째 손자인 懿昭世孫의 墓表와 誌石을 어필로 썼다.

○「御筆 朝鮮 懿昭世孫之墓」(『金石集帖・黃』)

49) 『英祖實錄』 권67, 英祖 24년 6월 丁丑(24일).
50) 『英祖實錄』 권68, 英祖 24년 윤7월 辛巳(29일); 8월 甲申(2일); 8월 丙戌(4일).

懿昭世孫은 思悼世子와 惠慶宮의 첫째 아들이다. 1750년(영조 26) 8월 27일에 태어나 1752년 3월 4일에 사망하였고, 5월 12일에 묘소를 조성하였다. 영조는 墓表의 전면과 음기를 모두 어필로 써서 맏손자에 대한 정성을 표시하였다.

묘표의 전면은 "御筆 朝鮮 懿昭世孫之墓"이고, 음기는 "御製御筆"이라 기록한 다음에 본문이 나온다. 음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내가 왕위에 오른 지 26년인 경오년(1750) 8월 27일에 탄생하였다. 임신년(1752) 3월 4일에 죽으니 아 나이는 겨우 3세이다. 5월 12일에 양주 안현(鞍峴)의 남쪽 기슭에 사향(巳向, 남남동)을 바라보는 언덕이다. 아, 이것이 나의 세손이 태어나고 사망한 것이다. 전면의 대자(大字)와 후면의 음기(陰記)는 모두 직접 썼다. 여러 의물(儀物)의 숫자를 감하고 제도도 감하였으니, 후세 사람들이 나의 어린 손자를 위해 묘소를 보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51]
>
> ○「御筆 朝鮮 懿昭世孫墓誌」(『金石集帖・黃』)

영조는 1752년(영조 28) 3월 4일에 맏손자였던 懿昭世孫이 사망하자 그 誌石을 짓고 어필로 썼다. 지석의 제일 앞에 大字로 "御筆 朝鮮 懿昭世孫墓誌"라 쓰고, 다음에 小字로 "御製御筆 懿昭世孫墓誌"라 쓴 다음에 본문이 시작된다. 영조는 1751년(영조 27) 11월에 맏며느리인 현빈의 지석을 썼는데, 불과 4개월 만에 맏손자의 지석을 쓰게 되었다.[52]

영조의 지석에는 효성스럽고 총명하였던 맏손자를 불과 세 살에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진한 슬픔이 나타난다.

> 아 세 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행록(行錄)을 짓겠는가? 시호가 있고 지문이 있는데 행록이 없으면 어떻게 징험하겠는가? 눈물을 머금고 기록하니 마음이 찢어지려 한다. 이미 시말(始末)을 썼으니 의리에 맞는 행동을 기록해야겠는데,

---

51) 『金石集帖・黃』, 「御筆 朝鮮 懿昭世孫之墓」. "予卽阼二十六年庚午八月二十七日誕生. 壬申三月初四日卒, 噫! 得年纔三歲. 五月十二日葬于楊州鞍峴南麓巳向原. 嗚呼, 此我世孫生卒也. 前面大字, 後面陰記, 皆親書. 凡諸儀物, 減其數, 減其制, 令後人爲我幼孫見墓而垂淚焉."

52) 권용란, 「조선 왕실 의소묘(懿昭廟) 의례의 형성과 특징」, 『역사민속학』 62, 한국역사민속학회, 2022, 140-141면.

> 아, 내가 세 살 손자에게 한 글자라도 과장하겠는가? 그저 대강만 기록할 뿐이다. (…) 한 번 병이 나자 달포를 끌었는데, 끝내 치료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별빛 같은 눈망울과 또렷한 음성을 어디서 다시 보고 듣겠는가? 아 슬프고 슬프다. 직접 행록을 짓고 지문을 지었으며, 재실(梓室)의 '상(上)' 자와 묘표의 전면과 후면을 모두 직접 썼다. [행록은 본묘(本廟)에 보관하고, 지문은 현실(玄室)의 혼유석 아래에 보관한다.] 여러 의물은 반드시 제도를 줄여 후세 사람들이 나의 손자를 위해 일찍 죽은 것을 슬퍼하게 한다. (…) 나의 양지(良知)한 현손(賢孫)을 위해 슬피 울면서 기록한다.[53]

영조 대에 조성된 왕실 가족의 석물에는 국왕의 후궁을 위한 표석이 있다. 여기에는 숙종의 후궁인 貴人 金氏, 선조의 후궁인 仁嬪 金氏, 명종의 후궁인 慶嬪 李氏가 있었다.

○「朝鮮國 貴人慶州金氏之墓」(『金石集帖・荒』)

貴人 金氏는 金時龜의 딸로 1690년(숙종 16) 4월 8일에 태어나 1698년에 궁녀로 들어왔다. 1705년(숙종 31)에 淑媛이 되고, 1710년에 貴人이 되며, 1720년에 肅宗이 사망하자 예법대로 상례를 치렀다. 이후 餘慶坊에 있는 私第에 거처하다가 1735년(영조 11) 7월 28일에 사망하였다.[54]

이 墓表를 작성한 사람은 驪川君 李增이고, 글씨를 쓴 사람은 洛豊君 李楙로 宗室 출신이다. 이증은 자신이 귀인의 집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영조의 명으로 陰記를 짓게 되었고, 女侍의 狀文과 자신이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음기에 따르면 귀인 김씨는 1735년 9월에 楊州 仁場里에 묻혔고, 표석은 1737년(영조 13) 10월에 세워졌다.[55]

---

53)『金石集帖・黃』,「御筆 朝鮮 懿昭世孫墓誌」. "嗚呼, 三歲幼兒, 豈述行錄? 而有諡焉, 有誌焉, 其无行錄, 何以徵焉? 飮泣以記, 心膽欲摧. 旣述始末, 宜錄行誼, 而嗚呼, 予豈忍爲三歲孫一字夸大乎, 只錄其槩焉. (…) 一疾彌留月餘, 終至于難醫之境, 明星之眼, 開朗之音, 何復見聞? 嗚呼痛矣, 嗚呼痛矣. 親製行錄, 仍作誌文, 幷與梓室上字, 墓表前後面皆親書.[行錄藏於本廟, 誌文藏於玄室魂遊石下.] 凡諸儀物, 必也減制, 令後人爲我孫哀殤焉. (…) 爲我良知賢孫, 痛泣以識."
懿昭世孫의 誌石은『英祖實錄』에도 全文이 수록되어 있다[권76, 英祖 28년 5월 壬申(12일)].

54)『英祖實錄』 권40, 英祖 11년 7월 乙丑(28일).

55)『金石集帖・荒』,「朝鮮國 貴人慶州金氏之墓」. "上以臣增, 居邇貴人第, 聆德有素, 命臣識陰. 恭惟貴人,

○「有明朝鮮國 敬惠仁嬪 順康園」(『金石集帖・荒』)

仁嬪 金氏(1555~1613)는 1555년(명종 10) 2월 29일에 태어났으며, 이종사촌인 慶嬪 李氏가 자식이 없어 그녀를 궁 안으로 데려가 양육하였다. 1568년(선조 1)에 선조의 후궁이 되었고, 1580년(선조 13)에 定遠君(元宗)을 낳았으며, 1604년(선조 37)에 仁嬪이 되었다. 인조 이후 조선의 국왕들은 모두 그녀의 후손이 된다.

驪川君 李增은 효종의 4세손으로 영조와는 8촌 近親이다. 영조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1748년(영조 22)에 본가 廟堂에 괴이한 투서가 발견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三司의 탄핵을 받아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1752년에 사망하였다. 이때 인빈 김씨의 사당이 이증의 본가에 있었으므로, 영조는 1755년(영조 31) 6월에 인빈 김씨의 신주를 松峴宮(儲慶宮)으로 옮기고, 묘소의 이름을 順康園이라 하였다.[56]

영조는 1755년 7월에 순강원 표석의 전면과 음기를 모두 어필로 기록하였다. 전면의 大字는 "有明朝鮮國 敬惠仁嬪 順康園"이며, 음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빈(嬪)의 성은 김씨이며 본관은 수성(隋城)이다. 본말의 사실은 신도비에 모두 기록되었으므로 지금 중복하지 않는다. 소자가 왕위를 계승한 지 31년이 되는 을해년(1755) 2월에 빈의 묘소를 방문하고, 이해 6월 3일에 신위(神位)를 송현장묘(松峴章廟)의 고궁(故宮)에 봉안하였다. 시호를 경혜(敬惠)로 정하고, 궁호(宮號)를 저경(儲慶), 원호(園號)를 순강(順康)이라 하고, 정자각을 세우고 예(禮)대로 거행한 후 눈물을 삼키며 순강원 표석의 전면과 후면을 직접 쓴다. 아 소자는 지금 이후로 추선보본(追先報本)의 정성을 조금이나마 편다.
>
> 황명(皇明) 숭정(崇禎) 기원후 세 번째 을해년(1755) 초추(初秋, 7월)에 세우다.[57]

영조는 1755년 8월에 순강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사를 올렸으며, 이틀 후에는 「順康園記」를 짓고 현판으로 만들어 순강원에 걸게 하였다.[58]

平昔肅考, 曾簡之矣, 歿後聖上, 且榮之矣, 顧何待蕪詞掞揚. 謹徵女侍狀文, 且據曾所敬歎者, 略記如右."

56)『英祖實錄』 권85, 英祖 31년 6월 甲辰(2일).

57)『金石集帖・荒』, 「有明朝鮮國 敬惠仁嬪 順康園」. "嬪姓金氏, 貫隋城. 本末事實, 具載神道碑, 今弗架疊. 小子嗣服三十一年乙亥仲春, 歷拜嬪墓, 是年季夏三日, 奉神位安于松峴章廟故宮. 定謚敬惠, 宮號儲慶, 園號順康, 象設丁閣, 若禮擧行, 而飮涕親寫園表前後面. 嗚呼小子, 從今以後, 少伸追先報本之忱云爾. 皇明崇禎紀元後三乙亥初秋立."

○「有明朝鮮國 贈慶嬪李氏墓」(『金石集帖・荒』)

慶嬪 李氏는 명종의 후궁으로 文定王后의 侍女로 있다가 1558년(명종 13)에 후궁이 되었다. 선조의 후궁인 仁嬪 金氏의 이종사촌이다. 영조는 1755년(영조 31) 6월에 인빈 김씨에게 시호를 올리고, 묘소를 순강원으로 승격시켰는데, 인빈 김씨를 궁궐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경빈 이씨도 높여야 한다고 淑儀에서 慶嬪으로 추증하였다.[59]

영조는 경빈 묘표의 전면과 음기를 모두 어필로 썼다. 전면의 大字는 "有明朝鮮國 贈慶嬪李氏墓"이고, 음기는 "淑儀李氏, 卽明廟後宮, 順康園表妹也. 予嗣服三十日年夏, 封園後, 特贈慶嬪, 乃追遠報本之餘意. 皇明崇禎紀元後三乙亥, 手書前後面, 令本官竪石."이다. 이를 보면 영조는 숙의 이씨를 경빈으로 추증한 것은 追遠報本이라고 하여, 인빈 김씨에게 追先報本의 의미가 있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1755년 8월 4일에 영조는 순강원을 방문하는 길에 경빈 이씨의 묘소도 방문하였다.[60]

5. 맺음말

지금까지 영조 대에 조성된 왕실 석물과 현판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왕실 가족의 행적을 기록한 석물과 현판 10건, 왕릉 석물과 종묘 현판 24건, 왕실 가족 묘소의 석물 10건 등 총 44건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하에서는 영조 대에 조성된 왕실 석물과 현판의 특징을 정리한다.

첫 번째로 영조 대의 왕실 석물과 현판에는 어제 어필을 새긴 것이 다수이고, 영조가 가까운 가족에게 느끼는 애틋한 정감을 표현한 글이 많다. 영조는 母后인 인현왕후와 인원왕후, 生母인 숙빈 최씨에 대해 모두 어필비를 남겼으며,「仁顯聖后誕降舊基」표석은 인현왕후 승하 60주년,「朝鮮國 和敬淑嬪昭寧園」표석은 숙빈 최씨가 숙원에 봉해진 지 60주년을 기념하여 어필로

58)『英祖實錄』권85, 英祖 31년 8월 乙巳(4일); 8월 丁未(6일).
59)『英祖實錄』권85, 英祖 31년 6월 乙巳(14일).
60)『英祖實錄』권85, 英祖 31년 8월 乙巳(4일).

쓴 것이다. 또한 「朝鮮國 仁元王后祔右岡」은 인원왕후의 표석으로, 영조가 국왕에 있는 동안 세운 22개의 왕릉 표석 가운데 유일한 어필 표석이었다.

영조는 가까운 가족을 위해 지은 글에서 '슬프다'는 표현을 많이 썼다. 「仁顯聖后誕降舊基」 비문에서는 '울음을 머금고 쓴다.'고 하였고, 「太祖大王誕生舊里」 비문에서는 '슬픈 생각이 배나 더한다.'고 하였다. 인원왕후의 표석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쓴다.'고 하였고, 숙빈 최씨의 표석에서는 '울음을 삼키며 쓴다.'고 하였다.

가장 슬픈 내용은 맏며느리 현빈과 맏손자 의소세손의 誌石에 나타났다. 영조는 현빈의 지석에서 맏며느리와 자신의 일화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슬프고 애통하다.'고 하였고, 4개월 후에 지은 의소세손의 지석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기록하니 마음이 찢어지려 한다.'고 하였다. 영조는 맏아들인 孝章世子(眞宗)와 후궁인 暎嬪 이씨의 지석도 어필로 작성하였으나 이는 『금석집첩』에 수록되지 않았다. 영조는 가까운 가족의 지석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가장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두 번째로 영조 대의 왕실 석물과 현판에는 宗室 인물의 글씨가 많다. 종묘의 망묘루에 걸린 「望廟樓御製懸板」은 西平君 橈가 영조의 어제시를 필사하였고, 「淑嬪崔氏神道碑銘」은 효종의 사위인 錦平尉 朴弼成이 짓고, 驪山君 李枋과 西平君 李橈가 글씨를 썼다. 왕릉 표석의 음기는 西平君 李橈, 驪善君 李塋, 洛豊君 李榓가 글씨를 썼고, 귀인 김씨의 묘표는 驪川君 李增이 짓고 洛豊君 李榓가 글씨를 썼다. 賢嬪의 표석도 洛豊君 李榓가 篆字를 썼는데, 이들은 모두 宗室 출신이었다. 이를 보면 영조 대에 조성된 왕실 석물과 현판에는 종실 인물의 참여가 많았다.

세 번째로 『금석집첩』을 편집한 김재로・김치인 부자와 관련이 있는 석물과 현판이 많다. 기로소에 걸린 「耆老諸臣召見日綸音」 현판은 김재로가 영조의 어제를 필사한 것이고, 사물헌에 걸린 「御製紀懷」 현판은 김치인이 영조의 어제를 필사한 것이다. 종묘의 망묘루에 걸린 「望廟樓御製懸板」과 「登望廟樓紀懷」 현판은 각각 김재로와 김치인이 跋文을 쓴 것이다. 영조가 '을축년의 기록은 김 봉조하(김재로)였고, 지금은 그 아들에게 쓰게 하니 나의 뜻이 있다.'고 한 발언에서 보듯, 영조는 의도적으로 두 부자에게 망묘루의 현판을 쓰게 하였다.

이러한 왕실 현판은 영조의 행적과 관련이 있으나 김재로・김치인 부자가 직접 제작한 현판이었기에 『금석집첩』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61]

네 번째로 영조 대에 조성된 왕실 석물과 현판에는 尊明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왕실 석물과 현판을 조성한 시기를 표시할 때, 명나라가 존재할 때는 반드시 '皇明(皇朝) 연호 +○年'이라 표시하고,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皇明(皇朝) 崇禎紀元後 +○年'이라 표시하였다. 이는 원나라 시기를 '元 연호 +○年'이라 표시하고 청나라 시기를 干支만 표시하던 방식과는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또한 왕릉 표석에 명나라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내린 시호는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청나라 황제가 내린 시호는 있어도 기록하지 않아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왕실 석물과 현판에서 명 연호를 표시하고 명 황제가 준 시호를 명시한 것은 종묘의 신주를 기록하는 방식과 같았으며, 조선이 명나라를 계승한 중화 국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62]

『금석집첩』에 수록된 영조 대의 왕실 자료에는 선대 국왕과 왕실 가족에 대한 영조의 애틋한 감정과 명나라를 계승한다는 역사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금석집첩』의 편집자인 김재로・김치인 부자가 직접 제작한 왕실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61) 영조가 개성에 행차했을 때 남긴 「高麗忠臣不朝峴碑」의 음기는 개성유수 金若魯가 지었다. 金若魯는 金在魯와 사촌 간이다.

62) 1897년 大韓帝國이 건설되면서 종묘 신주에서 명나라 황제가 준 시호가 사라졌다. 이현진, 「대한제국의 선포와 종묘 제도의 변화—七廟의 구성과 황제 추존, 신주 改題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0, 한국사상사학회, 2021, 522-532면.

▮ 참고문헌

『金石集帖』(https://rmda.kulib.kyoto-u.ac.jp/collection/kinseki)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松都續誌』
『松京廣攷』
『中京誌』
『牧谷集』

권용란, 「조선 왕실 의소묘(懿昭廟) 의례의 형성과 특징」, 『역사민속학』 62, 한국역사민속학회, 2022.
김문식, 「1740년 국왕 영조의 개성 행차」, 『조선시대사학보』 52, 조선시대사학회, 2010.
_____, 「『금석집첩』의 왕실 자료와 태조 이성계의 행적」, 『민족문화연구』 9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김민규, 『조선시대 능묘 비석 연구』, 신구문화사, 2023.
金世恩, 「『의주등록』을 통해 본 영조 대의 국가 의례와 왕실 행사—영조 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135, 진단학회, 2020.
김우진, 『숙종의 대청인식과 수도권 방어정책』, 민속원, 2022.
박영민, 「『金石集帖』의 여성 묘주 탁본 연구」, 『민족문화연구』 9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박철상, 「金在魯家 『金石集帖』 纂輯 연구」, 『민족문화연구』 9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심경호, 「『금석집첩』과 『금석속첩』의 성립에 관한 탐색—김재로 본종·방친 비탁과 청풍김씨 문인 찬술 비탁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9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이왕무, 「영조의 私親宮·園 조성과 幸行」, 『藏書閣』 1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_____, 「조선후기 종묘 행행의 추세와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75, 조선시대사학회, 2015.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神主位版 題式의 변화—明淸의 교체를 기점으로—」, 『震檀學報』 101, 진단학회, 2006.
_____, 「대한제국의 선포와 종묘 제도의 변화—七廟의 구성과 황제 추존, 신주 改題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0, 한국사상사학회, 2021.

나인혜, 『영조대 왕릉 표석의 수립과 그 의의』,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23.

【Abstract】

Royal Tombstone and Royal Signboard made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Kim, Moon-sik*

This paper was written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oyal tombstone and the royal signboard produc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among the royal materials contained in *Geumseokjipcheop*.

Many of the tombstones and signboards made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are engraved with the writings and letters of King Yeongjo's. King Yeongjo produced a monument for his adoptive mother, Queen Inhyeon, Queen Inwon, and his birth mother Sukbin Choi. King Yeongjo used the expression "sad" a lot in his writings for his close family, and the biggest sadness appears in the tombstones of his eldest daughter-in-law Hyun Bin and eldest grandson Euiso Seson. King Yeongjo honestly expressed his sorrow on the tombstones of a nearby family.

The tombstones and signboards made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have many letters from the royal family. Specifically, there are letters left by Yeosan-gun Yi Bang, Seopyeong-gun Yi Yo, Yeosun-gun Yi Hak, and Nakpung-gun Yi Mu. In addition, the royal signboards show that the father Kim Jae-ro and his son Kim Chi-in are directly related. The royal signboards seem to have been included in the *Geumseokjipcheop* because they were produced by these two people themselves.

The tombstones and signboards made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clearly show a sense of respect for the Ming Dynasty. When marking the time when the tombstone and signboard were produced, the Ming era name was marked when the Ming Dynasty was present, and when the Qing Dynasty was present, only the year was simply marked. In addition, the title given by the Ming emperor to the king of Joseon must be recorded, but the title given by the Qing emperor is not recorded.

The royal materials contained in the *Geumseokjipcheop* clearly show King Yeongjo's affection for the royal family and his sense of history of inheriting the Ming Dynasty.

Keywords: *Geumseokjipcheop*, King Yeongjo, Hyun Bin, Euiso Seson, Kim Jae-ro, Kim Chi-in.

접수일: 2023.06.30.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0.

* Professor, Dept. of History, Dankook Univ.